

점점 낮아지는 명품 소비연령



▲ 지난해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고객들이 개점 시간을 앞두고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명품이 대중화되면서 처음 접하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MBN'에 따르면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이날 전국의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명품 소비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6%)이 주변에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할 만큼 명품은 대중화 돼 있었다.

명품을 구매하는 적정 시기로는 경제적 소득이 있는 30대(37.2%·중복응답)와 40대(49.5%)를 많이 꼽았다. 다만 실제로 명품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20대 직장인(45.6%), 대학생(35.8%), 고등학생(26%) 등의 순으로 많아 더 어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음만 먹으면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답변은 69.6%였고, 10명 중 8명(84.6%)은 명품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명 중 1명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구입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명품을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과시한다(56.1%)거나 사치스럽다(51.8%), 허세가 있다(47.5%)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명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오랫동안 브랜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제품(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무리 명품이라도 디자인이 별로면 의미가 없다는 답변도 75.5%에 달했다. 10명 중 8명(77.6%)은 같은 값이라면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불안에 '아파트 쏠림' 사상 최대

주택 전세거래액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로 내려앉았다. 전세사기 불안 등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심리 확산이 아파트 쏠림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국민일보'가 부동산 플랫폼 직방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 225조7,000억원 중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44조2,000억원으로 19.6%에 그쳤다.

이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지기는 정부가 2011년 주택 임대 실태거래가를 공개하고 처음이다.

비아파트에 등을 돌린 전세 수요는 큰돈 매일 우려가 적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파트 전세로 넘어갈 수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빌라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밖에 없다. 2021년 74.8%에서 지난해 76.1%로 높아진 아파트 전세거래액 비중은 올해 80.4%(181조5,000억원)까지 커지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인 2012년 76.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원래도 한 자릿수로 낮았던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액 비중은 지난해 3.2%에 이어 올해 2.5%까지 줄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어 수도권 비아파트가 역시 사상 최저인

17.1%로 지방 아파트 전세(18.5%)보다도 낮았다.

지역별로는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사기가 빈발했던 인천(81.1%) 경기(81.7%)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80%를 넘어섰다. 이들 지역 비아파트 비중은 18%대로 줄었다. 서울은 아파트 전세 비중이 사상 최고인 75.4%까지 늘었다. 이 수치가 70%를 넘기기는 2017년(70.1%) 이후 처음이다.

가계빚 1년 만에 또 역대 최대

한국의 올 3분기 가계신용 규모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1,861조3,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작년 3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치(1,871조1,000억원)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기 전인 2019년 4분기 1,600조6,000억원에 비해 275조원 많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올 3분기 말 1,75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작년 2분기 기록한 역대



▲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최대치(1,757조1,000억원)를 넘어섰다.

항목별로 보면 주담대가 크게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3분기에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14조1,000억원 증가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위축으로 5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빚이 늘어난 데에는 금융당국의 완화적 금리 지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은행 등에 대출금리를 높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는 가계빚을 늘려도 괜찮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특히 예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목기지 공급도 '빚을 내 집을 사야 할 때'란 인식이 확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고풍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